

#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사료적가치와 제한성

허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날의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시대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44권 2페이지)

고구려는 지난날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전기간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동방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특히 고구려는 수나라의 대규모적인 무력침공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침으로써 황제국, 천자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 《24사》의 하나인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사료적가치와 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의 강대성과 황제국으로서의 면모, 봉건적조세제도 등을 밝히려고 한다.

《수서》는 당나라의 위징 등이 편찬한 수(581-619년)왕조의 력사책으로서 모두 85권으로 되어있다. 《수서》는 본기, 지, 렬전으로 구성된 기전체력사책인데 그중 본기(5권)와 렬전(50권)은 위징, 안사고 등이 636년에 완성하였고 지(30권)는 우지녕, 리순풍 등이 656년에 편찬완성하였다.

《수서》에는 고구려에 대하여 서술한 고려(고구려)전이 있다. 여기에는 고구려의 건국전설인 주몽전설과 고구려와 위, 전연, 북위, 북주, 수 등 중국의 여러 왕조들간의 관계기사, 고구려령토의 크기, 수도, 부수도, 품계제도, 조세제도, 형벌제도, 민속자료 등이 기록되어있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은 고구려가 존재하였던 당시에 편찬되고 여러가지 사료들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고구려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일정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사료적가치는 첫째로, 고구려가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고구려가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다는것은 고구려왕이 황제를 칭하였다는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기록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에는 《위궁의 현손의 아들을 소렬제(昭列帝)라고 하였는데 그는 모용씨에게 격파되는바 되었다. 모용씨는 드디어 환도에 들어가서 궁실을 불사르고 크게 략탈하고 돌아갔다. 소렬제는 후에 백제에게 살해되는바가 되었다.》라는 기사가 실려있다. 여기서 소렬제는 고국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이 자기 아버지에게 추증한 시호로 볼수 있다.

고구려의 소수림왕이 자기의 아버지를 소렬제로 추증한 사실은 고구려가 황제국의 체모에 맞는 시호들을 사용했다는 귀중한 사료로 된다.

고구려는 소렬제밖에도 황제의 나라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태학》(太學), 《태묘》(太廟), 《조》(詔) 등의 여러가지 명칭들을 썼다. 그것은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2년(372년) 6월조에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하였다.》라고 한 사실, 408년에 축조된 덕흥리벽화무덤에서 《태묘작식인》(태묘에서 음식만드는 사람)이라는 목서가 나온 사실,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11년(600년) 정월조에 태학박사 리문진에게 《조》(황

제의 지시)하여 《신집》 5권을 편찬하게 한 사실 등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가 3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황제국의 체모에 맞는 여러가지 제도를 실시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물론 고구려는 국가성립의 초시기부터 황제국의 지위에 있었으며 고구려왕은 여러 후국의 왕들을 거느린 대왕, 천자였다. 고구려의 왕이 투항해온 비류국왕 송양을 다물도 주로 임명하였다가 후에 다물후로 봉한것은 고구려의 왕이 대왕, 천자였음을 알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가 3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황제칭호를 사용하고 황제국의 체모에 맞는 제도들을 수립하고 용어들을 쓴것은 그것이 당시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것과 관련되었다.

4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구려는 대내적으로는 큰 나라에 맞는 중앙 및 지방관제를 구비하여야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대륙에 생겨난 여러 나라들 특히 고구려와 이웃한 전연, 전진과 대등한 지위에서 대외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연과 전진은 352년에 황제칭호를 쓰게 되었는데 그들과 맞서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면 고구려도 황제칭호를 사용하여야만 하였던것이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사료적가치는 둘째로, 고구려의 봉건적조세제도의 일면을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고구려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는 거의나 알려져있지 않지만 중국 《24사》의 《주서》, 《북사》, 《수서》에는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고구려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주서》 권49 이역 고구려전에는 《부세는 비단, 베 및 곡식을 그것이 있는데 따라(즉 생산한 현물을) 그리고 빈부의 차이를 헤아려 차등있게 바친다.》라고 되어있으며 《북사》 권94 고려(고구려)전에는 《세는 베 5필, 곡식 5섬이다. 유인(遊人)들은 3년에 한번 세를 내되 10명이 함께 가는베 1필을 낸다. 조(租 전조)는 호당(상등호) 1섬, 차등호는 7말, 하등호는 5말이다.》라고 서술되어있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에는 《북사》와 똑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다만 《북사》에서의 《세》를 《인세》로 고쳤다.

우의 자료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대가 변화하는데 따라 《수서》의 간략된것을 《북사》가 보충하고 《북사》의 모호한것을 《수서》가 보충하였다. 다시말하여 《주서》에서는 고구려조세제도의 일반적원칙을 서술하였다면 《북사》와 《수서》 특히 《수서》에서는 고구려조세제도의 구체적내용을 기록하였다.

《주서》와 《수서》의 자료로부터 고구려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세는 생산한 현물을 빈부의 차이에 따라 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것, 모든 백성들은 인세(즉 호조)로서 호당(또는 장정당) 베 5필 또는 난알 5섬을 내야 한다는것, 유인(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3년에 한번 10명이 합해서 가는베 1필을 바쳐야 한다는것, 모든 농가호는 토지소유면적의 크기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등급으로 나누며 상등호는 1섬, 중등호는 7말, 하등호는 5말을 전조로 바쳐야 한다는것이다.

이처럼 《수서》 고려(고구려)전은 고구려의 조세제도에 대하여 제일 구체적으로 전하는 사료로 된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사료적가치는 셋째로, 고구려의 강대성을 잘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우선 네차례에 걸친 고구려-수전쟁기간에 수나라의 황제가 세차례나 직접 출동한 사실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590년 수나라의 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를 정복하려면 한명의 장수도 충분하다고 하던 수나라통치배들은 598년에 한왕 량을 우두머리로 하는 침략군을 고구려에 들이밀었다가 패하자 612년, 613년, 614년 세차례에 걸쳐 수나라의 황제였던 양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였다. 수나라통치배들은 진나라를 평정하기 위하여 한명의 장수와 수천명의 군사를 동원시켰다고 하면서 허장성세하였다. 그러나 세차례나 황제가 직접 수많은 장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은 고구려가 그만큼 강하였다는것을 잘 말해준다.

그것은 또한 고구려-수전쟁에서 고구려가 모두 승리한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598년 한왕 량이 거느리는 수나라침략군은 고구려인민들의 투쟁과 군량수송의 중단, 전염병 등으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하였으며 612년에 또다시 패하였다. 613년, 614년에도 역시 고구려인민들의 항전과 수나라내부에서의 혼란 등으로 끝내 고구려를 굴복시킬수 없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612년전쟁때 수양제가 여러 장수들에게 내린 명령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수양제는 료동성을 공격하면서 수하장수들에게 《고려(고구려)가 만약 항복을 하면 바로 받아들일것이니 함부로 군사를 풀어 공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령하였다. 위징은 612년전쟁기사에서 수양제의 이 명령때문에 여러 장수들이 료동성을 함락할 기회를 놓쳐 전쟁에서 패한것으로 서술하였는데 사실 수나라침략군이 료동성을 함락하지 못한것은 애국심에 불타는 고구려군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때문이었다.

우에서 언급한 고구려의 강대성에 관한 자료들은 《수서》고려(고구려)전보다 《삼국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러나 《수서》가 고구려가 존재하던 당시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당나라관료들에 의하여 편찬된것은 수, 당나라봉건통치배들도 고구려의 강대성에 대하여 인정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수서》고려(고구려)전은 이상의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반면에 저자의 관점과 태도, 사료의 부족 등으로 하여 일련의 제한성을 가진다.

《수서》고려(고구려)전의 제한성은 첫째로, 고구려-수전쟁관계 기사를 매우 형식적으로 간단히 적어놓아 수나라의 패배상을 가리워버리려고 한것이다.

《수서》고려(고구려)전과 《삼국사기》에 실린 고구려-수전쟁관계 기사를 대비해보면 《수서》고려(고구려)전의 기사가 매우 간략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시말하여 《수서》고려(고구려)전에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수전쟁시기 수나라침략군의 병력수, 적장이름, 주요전투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지 않다. 특히 고구려-수전쟁가운데서 제일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였던 612년전쟁에 대하여서는 료동성전투만 서술하고 여기에 동원된 침략무력의 정확한 수와 주요전투였던 살수전투가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598년, 613년전쟁에 동원된 수나라 병력수는 6군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전하고있다.

《삼국사기》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조에 의하면 수양제는 612년에 300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속전속결로 고구려를 먹어보려고 하다가 료동성방위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가자 우중문, 우문술이 이끄는 9군의 30만 5 000명의 병력을 고구려의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봉황성으로 침입시켰다.

그러나 을지문덕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청야수성전술과 유인매복전술에 걸려들어

살수제선에서 대부분의 병력을 잃고 대참패를 당하고말았다.

이처럼 위징이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수서》 고려(고구려)전에서 612년전쟁에 참가한 수나라의 침략군수와 살수전투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것은 력사에 류례없는 대참패를 당한 수나라의 패배상을 될수록 감추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것이였다고 볼 수 있다.

《수서》의 저자였던 위징이 수나라의 패배상을 될수록 감추려고 한것은 그가 고구려와 대결관계에 있던 당나라의 관료였기때문이었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의 제한성은 둘째로, 일부 개소들에 부정확한 사실들이 적지 않은것이다.

우선 고구려의 령토에 대하여 잘못 서술한것이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의 령토의 크기에 대하여 《그 나라는 동서가 2천리, 남북이 천여리이다.》라고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수서》가 편찬되던 7세기 초엽에 고구려는 동서 6천리, 남북 5천리나 되는 광대한 령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서》에서 고구려의 령토를 잘못 서술한것은 위징이 이전시기 자료를 검토없이 인용하였거나 아니면 광대한 령토를 차지하고있던 고구려의 강대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90년(개황10년)에 수문제가 고구려의 평원왕에게 보낸 국서를 597년(개황17년)에 보낸것으로 잘못 서술한것이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에서는 개황(수나라의 년호)17년에 수문제가 고구려에 보낸 국서를 받고 평원왕이 답서를 보내려고 하다가 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이였던 원(영양왕)이 왕위에 올랐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지 평원왕이 죽고 원이 왕위에 오른 해는 590년이였다. 이 기사는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평원왕 32년(590년)조에 나온다.

또한 고구려의 영양왕이 말갈군 만여명을 이끌고 료서에 있던 수나라의 침략거점을 타격한 사실을 591년으로 잘못 서술한것이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에서는 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해에 우의 기사를 적어놓음으로써 1차 고구려-수전쟁이 591년에 있던것으로 서술해놓았는데 598년에 있던 사실을 잘못 써놓은것이다.

《수서》 고려(고구려)전은 이밖에도 고구려가 수나라에 《조공》하였으며 고구려왕이 수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고 서술해놓은 제한성도 가지고있다.

이처럼 《수서》 고려(고구려)전을 통하여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고구려는 높은 대외적권위를 지니고 수나라의 거듭되는 대규모적무력침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 동방의 대강국, 우리 민족의 당당한 주권국가였다.